

“산청서 자연의 푸르름을 즐기세요” 대원사 계곡길·두류생탐방로 등 걷기 좋은 힐링길

질푸른 녹음의 계절을 맞아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이 선물하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휴식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행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걷기 좋은 힐링길’을 소개했다. 힐링길은 다른 관광객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먼저 소개할 곳은 ‘대원사 계곡길’이다.

대원사 계곡의 물길은 삼장면에서 흘러내려 시천면 중산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만나 덕천강이 되는데 이 물길의 흐름이 꽤 빠르다.

시천면의 뜻이 화살 시(矢), 내 천(川). 즉 화살처럼 빠른 물이라는 뜻이니 그만큼 유속이 빠르다는 뜻. 맑은 날이 며칠 계속되면 용소 등 물이 모이는 곳이 아니면 금세 물이 흘러가 버린다.

험한 등산로가 아닌 산책길로 조성돼 있어 별다른 준비 없이 가볍게 걷기 좋은 3.5km 길이의 맞춤형 길이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천년고찰 대원사, 넓은 주차장 등 편리한 접근성과 걷기 수월한 탐방로가 주말이면 꽤 많은 사람이 찾는다.

중산 두류생태 탐방로(중산리 계곡)는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비롯된 계곡이다. 천왕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이기도 하다.

천왕봉과 중봉 사이에서 발원한 계류가 용추폭포를 거치면서 수량을 더해 씨리봉에서 흘러오는 계곡물과 만나면서부터는 우렁찬 물소리와 함께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다.

맑은 공기, 싱그러운 숲과 더불어 중산리 계곡을 바로 옆에 두고 감

상하며 걸어볼 수 있다.

중산 두류생태 탐방로의 시작점은 지리산중산산악관광센터로 1.2km

길이 구간이다. 중산관광센터는 지리산 천왕봉까지 직선거리로 약 5km

에 불과하다. 지리산 등산이 아니라도 천왕봉을 가장 지척에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우렁찬 계곡 소리와 함께 집채만 한 커다란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다.

탐방로 상층부에 닿으면 엄청난 규모의 돌무더기를 확인할 수 있다. ‘옛날 신선들이 놀았다’해서 ‘신선너들’

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231만㎡ 규모의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의 메카 동의보감촌이다.

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의 이야기를 품은 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을 본떠 지은 동의전과 약초 테마공원, 한방 테마공원 등 곳곳에 한방과 전통을 주제로 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동의보감촌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허준 순례길은 사철 푸른 소나무 숲속에 조성돼 힐링에 안성맞춤이다. 나무 데크가 깔려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다. ❶



1 동의보감촌
2 중산 두류생태 탐방로
3 대원사 계곡길



기산국악당 토요일상설공연

산청국악 축제

2022년 5월~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남사에담촌 기산국악당

5.07 (토) 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
남사당풍물판굿

5.14 (토) 시흥월미농악보존회
시흥월미농악

5.21 (토) 박경량의 춤 교방풍류놀이
벌 나비 산청에 놀다

5.28 (토) 풍류대장 국악어쿠스틱밴드
해음

6.04 (토) 풍류대장 월드뮤직밴드 '도시'
IN도시

6.11 (토) 연희집단 'the광대'
도는놈 뉘는놈 나는놈

6.18 (토) 이소정의 춤
동화(動花)

6.25 (토) 청매 연희단
원(ONE)

7.02 (토) 조선판스타 '경성구락부'
신청년

7.09 (토) 이다현 밴드
가 배 장 at 산 청

8.27 (토) 조선판스타 '퀸'
NEW WAVE

9.03 (토) 홍성현의 초벌비
수호신 골매기

9.17 (토) 전통타악 아작
고정관념의 틀을 "아작" 내다

10.01 (토) 조선판스타 박자희
Music is My life

10.08 (토) 어쿠스틱양상블 '재비'
청춘-산청으로 온 재비

10.15 (토) 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7호
진주오광대

10.22 (토) 풍류대장 창작음악그룹 '잔향'
소리의 향기는 백리를 걷는다

10.29 (토) 이창순의 춤
굿 프렌드

11.05 (토) 김보성의
소리 성(聲)

11.12 (토) 김강유의
첫소리, 첫장단, 첫몸짓

주최 | 산청군

주관 | 기산국악제전위원회

문의 | 055-972-4549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상동길 69

